

Empirical Research on Security Awareness of Multicultural Family Marriage Migrant Women

Kap Lyong Park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spect national security consciousness of marriage migrant women, and to figure out factors which affect on awareness of national security. Based on this, this study also suggests a way to build up national security of marriage migrant women. As the result of the factors on security situation, there were several things which are necessity of education, trust in the army and government, positivity toward North Korea and so on, while necessity of education, trust in the army and government, national pride and positivity toward North Korea were on the awareness of national security. There are three ways of building up national security consciousness of marriage migrant women. First, security education is needed to be in the social adjustment program of marriage migrant women. Secondly, concern on security is required to them. Third, a necessity of production on security education material is demanded for marriage migrant women.

▶ Keyword : multicultural family, security awareness, marriage migrant women, diaspora, security education

I . Introduction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국가 단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제적·문화적 영토의 확장을 끊임없이 시도해 오고 있다. 이로 인해 상품과 자본, 그리고 노동력의 이동을 통한 국가 간의 교류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이산민족, 즉 디아스포라(diaspora)는 다문화적인 능력과 소양을 갖춘 자들로서 각 국가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위치에 있다[1]. 디아스포라들은 한 국가에서 새로운 국가로 이주하며 거주국 사회에서 이들은 이주민으로 불리 운다. 이주민들은 그들의 사회적 정체성, 규범, 가치체계, 종교, 관습, 음식, 언어 등과 함께 새로운 터전에 정착하게 된다[2]. 특히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시작된 국제결혼과 함께 이주민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1990년대 초기에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 등이 펼쳐지면서 국제결혼 규모가 확대 되었으며, 1992년 한·중 수교와 함께 그 숫자가 급증하였다. 2000년대부터 본격화된 국제결혼을 통해 다문화가정이 형성되었으며

이 가운데는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 비율이 70-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3]. 이러한 국제결혼의 증가로 새로운 가족구성이 형성됨으로써 한국사회에 다문화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의 수도 점차 증가되고 있다. 이주하는 여성의 증가로 새로운 가족구성이 형성됨으로써 우리 사회에 다문화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의 수도 점차 증가되어 왔다[4]. 특히 최근 한국의 사회는 출산율 감소로 인해 전체 학령인구는 줄고 있는 추세지만, 다문화가정 학생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2014년 올해 최초로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가정 학생의 비율이 1%를 넘었다[5].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 등의 북한문제에 의해 국민들의 불안의식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또한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 역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남과 북이 서로 대치되는 상황에서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한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안보의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증가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일정조건을 충족시킨 후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민으로 살아 간다. 이들은 한국과는 다른 환경 속에서 생활했기에 분단의 현실 속에서 안보의식을 지닌 일반 국민에 비해 안보에 대한 역량이

• First Author: Kap Lyong Park, Corresponding Author: Kap Lyong Park
*Kap Lyong Park(pg1113@hanmail.net), Dept. of mp-officials, SongWon University
• Received: 2015. 08. 27, Revised: 2015. 09. 04, Accepted: 2015. 09. 06.
• This study is extracted from author's doctorate thesis.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안보의식과 결혼이주여성의 안보의식 함양이 필요하다.

이처럼 결혼이주여성의 증가와 자녀들의 입영문제로 인해 다문화가정의 안보의식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안보의식에 대한 논의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만 진행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로는 결혼이주여성의 안보의식을 파악하기 힘들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안보의식을 살펴보고, 안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일반 국민 안보의식 요인이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안보의식에도 영향을 주는지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으로 분석하고 결혼이주여성들의 안보의식 함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National Security Awareness and Analysis Model

1. National Security and Security Awareness

국가의 안전은 그 구성원인 국민들의 복지의 기초가 된다. 이러한 국가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제반활동을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이라고 풀이된다[6]. 국가안보는 국가가 정치적 실체로서 형성되기 시작한 이래 꾸준히 제기된 복잡한 문제이기에 국가안보의 분야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7]. 즉, 국가안보는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군사적, 비군사적인 위협으로부터 나라의 평화와 독립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존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국가의 안보정책 기능은 한 국가의 가치를 보호하거나 증진하는데 관련된 국가의 정책이다[8].

국가안보는 국가이익의 이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실제로 그로부터 발전된 개념이다. 그러나 국가안보는 국가이익의 개념과는 다른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즉 국가이익은 보통 국가에게 이익을 가져오는 국가의 모든 정책과 활동의 총체를 의미한다. 반면 국가안보는 국가의 모든 활동을 체계적으로 결합시키는 기본원칙들에 대해 중점을 둔다. 또한 국가정책의 지표로서 국가이익은 주관적인 개념이며, 가치 내재적인 선택의 과정을 포함하기에 개념상 모호하고, 분석도구로서의 유용성이 결여되어 있다. 반면 국가안보는 국가적 가치와 연결되어 있지만 그러한 가치를 국가체계 안에서 정치적 과정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에 관계된다. 결국 국가안보의 개념은 국가이익과 비교하면 보다 작은 가치 내재적 개념이다[9].

국가안보에 관한 국민들의 전반적인 의식을 안보의식이라 할 때 최근의 안보의식은 다음과 같이 변화를 보이고 있다. 첫째, 최근의 안보의식은 군사적 측면에서의 의식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즉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의식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전반적인 측면에서의

의식까지 포함시키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둘째, 비군사적 위협요소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의식도 안보의식에 포함시키려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움직임은 안보자체를 위기관리개념으로 보려는 시각이다. 셋째, 최근의 안보의 의식은 통일, 국제안보와 같은 국제정치적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치중하여 안보를 고려하였으나 현실적으로 군사문제는 경제문제와 정치문제에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안보의식의 개념은 국가를 둘러싼 군사적 혹은 비군사적 위협요소에 관한 국민들의 의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10].

2. Analysis Model

이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안보의식의 요인을 국내적 인 요소와 국외적인 요소로 구분하였다. 먼저 국내적 요인으로 첫째, 국가관이다. 이는 통일, 한국의 민주주의 추구, 한국자랑, 북한의 핵무기 보유,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보다 우월, 안보상황, 한국의 대적관, 국민의 안전 등이다. 둘째, 군정부기관에 대한 신뢰이다. 군 및 정부의 신뢰성과 개인의 삶의 만족정도, 국민에 대한 안전수호이다. 셋째, 안보교육이다. 한국에서 전쟁이 발생 시 참가여부와 안보교육의 필요성이다. 넷째, 군사력이다. 한국군대의 신뢰, 한국 군대의 운영정도, 남북한 군사력 비교이다. 다음으로 국외적 요인이다. 첫째, 주변국이다. 한반도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들의 국가이익이 표출되는 지역이므로 주한미군역할과 중국의 역할, 국제사회의 역할을 정하였다. 둘째, 남북관계이다. 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시키고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에 신뢰를 구축한 바탕 위에서 바른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가야 함으로 남북한 평화, 남북한 통일, 남북한 협력을 정하였다. 셋째, 미국의 역할이다. 미국은 한반도 문제뿐만이 아니라 동북아와 태평양 지역 전반의 안보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특히 한-미동맹관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함으로써 미국의 한국안보 도움과 협력지속 필요성으로 정하였다. 넷째, 화해협력이다. 남북관계는 긴장과 갈등 국면이 항시적으로 존재하였지만 협력과 대화의 국면들로 교차하는 것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써 북한과 화해협력 대상 및 미래 긍정적인 남북관계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변수의 선정을 바탕으로 분석모형을 도식화 하면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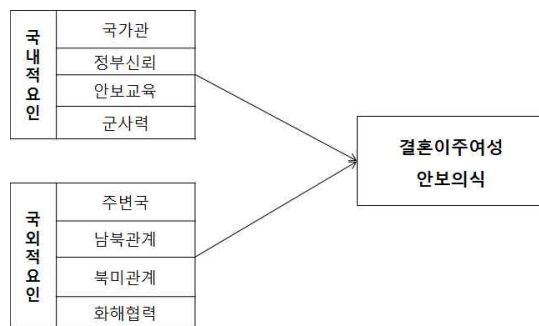


Fig. 1. Analysis Model

3. Measurement of Variables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안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국내적 변수와 국외적 변수로 구분한 뒤, 다시 국내적 변수는 개인적 차원과 국가적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생활만족의 정도를 3개 문항으로 측정하였고, 안보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에 있어서는 2개 문항, 안보보도에 대한 관심의 정도의 경우는 3개 문항,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의 정도는 2개 문항, 그리고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가치인 민주주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3개 문항으로 개념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국외적 변수는 국제협력과 북한위협으로 구분하였다. 국제협력은 한국을 둘러싼 주변국을 포함한 모든 국제사회의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4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우방으로서 미국의 중요성 인식 정도를 3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한편, 북한위협은 북한에 대한 긍정성 정도의 개념화하여 3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안보의식은 전반적 안보상황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3개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안보에 대한 개인 관심의 정도를 3개 문항으로 구분하여 개념을 측정하였다.

III. Analysis Result

1. Selection and Feature of Sample

이 연구는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의 안보의식을 조사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광주·전남지역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2011년 11월 3일부터 11월 20일까지 약 3주간 광주·전남 다문화 지원센터의 협조를 얻어 진행되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한국 국민으로서 한글과 문화교육을 받고 있지만 한국의 안보적 상황에 대한 교육은 받고 있지 않고 있으며, 또한 이들의 자녀들이 2012년부터 군에 입영하게 되므로 다문화가정의 안보의식이 국가발전과 체제수호 및 통일의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설문조사는 반응의 편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연적인 인구분포를 고려하여 전국 단위의 표본추출을 해야 하였으나 이 연구는 안보의식의 실태와 그 영향요인을 개괄적으로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광주의 북구, 동구, 남구, 광산구를 전담은 합평군과 곡성군에 각각 총 75부를 배포하였다. 설문지 회수는 총 47부의 표집을 확보하였으나, 그 중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기입하지 않은 설문지와 불성실한 답안 등을 제외하고 총 33부의 설문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령은 20대, 30대, 40대가 각각 48.5%, 30.4%, 21.2%로 고른 응답률을 보였다. 또한 교육수준으로 여성의 경우 대학 졸업자가 6.1%, 고졸 87.9%, 중졸 6.1%로 절반 이상을 고졸이 차지하였다. 남편의 교육수준은 대졸이 9.1%, 고졸이 87.9%, 중졸이 3.0%이다. 남편직업은 노동자 및 기타가 85.5%, 회사원이 15.1%, 공무원이 3.0%이다. 여성 직업은 전업주부가

63.6%, 회사원이 24.2%, 기타 12.1%이다. 자녀는 없음이 42.4%, 1명이 36.4%, 2명이 18.2%, 3명 이상이 3%이다. 국가는 중국이 36.4%, 베트남이 33.3%, 필리핀이 27.3%, 캄보디아 3.0%이다. 결혼기간은 2~4년이 45.4%, 5~8년이 27.3%, 10년 이상이 18.2%, 9~10년이 6.1%, 1년이 하가 3.0%이다. 월수입은 150~200만원이 45.5%, 200~250만원이 42.4%, 205~300만원 6.1%, 100~150만원, 300만원이상이 3.0%이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 of Sample (단위: 명, %)

변수	특성	응답자수 (명)	비율 (%)	합계
연령	20	1	3.0	33(100)
	25	15	45.5	
	30	5	15.2	
	35	5	15.2	
	40대 이상	7	21.2	
여자 교육수준	중졸	2	6.1	33(100)
	고졸	29	87.9	
	대졸	2	6.1	
남편 교육수준	중졸	1	3.0	33(100)
	고졸	29	87.9	
	대졸	3	9.1	
남편직업	회사원	5	15.1	33(100)
	공무원	1	3.0	
	노동자 및 기타	27	81.5	
여성직업	전업주부	21	63.6	33(100)
	회사원	8	24.2	
	기타	4	12.1	
자녀	없음	14	42.4	33(100)
	1명	12	36.4	
	2명	6	18.2	
	3명이상	1	3.0	
국가	베트남	11	33.3	33(100)
	중국	12	36.4	
	필리핀	9	27.3	
	캄보디아	1	3.0	
남편나이	30세이상	1	3.0	33(100)
	35세이상	9	27.3	
	40세이상	23	69.7	
결혼기간	1년이하	1	3.0	33(100)
	2~4년	15	45.4	
	5~8년	9	27.3	
	9~10년	2	6.1	
	10년이상	6	18.2	
월수입	100~150만원	1	3.0	33(100)
	150~200만원	15	45.5	
	200~250만원	14	42.4	
	250~300만원	2	6.1	
	300만원이상	1	3.0	

2. Verification of Validity and Reliability

결혼이주여성의 안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국내적 변수의 경우 개인적 측면과 국가적 측면으로 구분하였으며, 국제적 변수는 국제협력과 북한위협으로 구분하였다. 개인적 측면은 생활만족의 정도와 교육필요성의 인식정도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국가적 측

면에서는 군과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정도, 정치 및 안보보도에 대한 관심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의 정도, 민주주의 중요성 인식정도를 개념화하여 측정하였다. 한편, 국제협력의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중요성 인식정도와 미국의 중요성 인식정도를 구분하여 항목화 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긍정성의 정도를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결과는 요인추출방법으로서 주요인 분석, 요인회전방법으로는 카이저 정규화를 이용하는 배리맥스 직각회전법을 사용하였다. 요인분석결과 각 항목의 요인적재량은 .481-.874로 나타났다. 요인적재량이 대부분 .5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요인적재량의 유의도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s alpha 계수가 .629-894로 .6을 초과하고 있어 각 변수들의 신뢰도 역시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

3. Analysis on the Security Awareness of Marriage Migrant Women

3.1 Perception Research in Individual Situation

결혼이주여성의 개인적 상황에 대해서 느끼는 인식의 정도는 <표 2>와 같다.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그저 그렇다”가 66.7%, “그렇다”가 33.3%로 대부분 보통 만족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상황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가 48.5%, “그저 그렇다”가 42.4%로 조사되어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다고 인식한다.

“안보교육을 받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가 84.8%, “그렇다”가 9.1%로 대부분 받은 경험이 없었다. 안보와 관련한 교육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안보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정도는 “그렇지 않다”가 12.2%, “그렇다”가 42.4%로 조사되어 교육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Table 2. Life Satisfaction and Perception of Education Needs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삶에 만족하고 있다.	0 (0.0)	0 (0.0)	22 (66.7)	11 (33.3)	0 (0.0)
2. 나는 가정의 경제상태가 풍족하다.	0 (0.0)	16 (48.5)	14 (42.4)	3 (9.1)	0 (0.0)
3. 나는 안보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27 (81.8)	1 (3.0)	2 (6.1)	3 (9.1)	0 (0.0)
4. 나는 안보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6.1)	2 (6.1)	15 (45.5)	14 (42.4)	0 (0.0)

사실상 한국의 안보교육은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특별히 실시되고 있는 것이 없으며, 초·중·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시대적 변화속에서 약화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교과서를 중심으로 초등학교의 경우 도덕과에서 안보교육은 4차 교육과정(1982년

-1988년)부터 급격히 약화되었으며 현재에 이르러서는 거의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도덕이나 국민윤리에서 다루어지는데, 그 내용은 주로 건전한 국가관과 애국심, 민주주의 이념과 생활양식, 공산주의 이념과 체제에 대한 비판, 북한 체제의 문제점과 비참한 현실상 등이 중심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안보교육 관련 역시 줄어들고 있다[11]. 이러한 현실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은 안보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오늘날과 같이 북한과의 긴장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안보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다. 다음은 추가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한국 생활의 만족과 안보교육에 대한 심층면접 내용이다.

(한국에 온 지)한 4년 넘었어요, 애기가 3명이니까 어디가지 못해요. 한국은 (중국보다) 인사 잘해요. (한국어 교육은) 배움말 센터(다문화센터)... (한국)생활하는 데에는 큰 부족함 없어요. 처음에 아줌마들 자주 모이는 거 아니고... 우리 남편친구들 잘 따라 가요. <중국 한족 결혼4년 이주여성, 사례1>

결혼 한지 10년 됐고..애기는 없고 (통일교로) 소개 받아서 왔어요. (한국생활은) 처음 왔을 때는...안 좋아요. 조금 어려워.... 지금은 생활하는 상태가 필리핀보다는 아.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 옛날에는 조금 어려웠어.지금 집 샀어요<필리핀 결혼10년 이주여성, 사례2>

(한국 온 지)12년 쯤요, (한국에 살아보니까)아유 다 지금은 살만해요. 안보(통일)교육 같은거, 안 해봤어요. (전쟁 대비교육) 없어요. (북한에 대한 것은) 그 열한 살 엔가? 애기가 근데 자기가족 이야기 하면서 저 북한에서 어떻게 사는지...(북한이탈주민 생활상) (한국생활은) 나때같은 결혼은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보면 나는 나는 그렇게 나는 중간적으로 그러는데 나보다 못한 사람이 많아 가지고, 줌... 줌... <필리핀 결혼12년 이주여성, 사례3>

위의 <사례 1>, <사례 2>, <사례 3>의 결혼이주여성 모두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경제적으로 힘들었으나, 점차 생활이 나아지고 있다. 이들 모두 안보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없으며, 다문화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웠음을 알 수 있다.

3.2 Perception Research in National Situation

군·정부기관에 대한 신뢰에 있어서는 “한국의 군대는 믿을 수 있다”가 54.5%, “그렇지 않다”가 3%로 대부분 한국군대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보다 한국의 군사력이 높다”가 12.4%, “그렇지 않다”가 54.5%으로 한국군의 군사력이 낮다고 나타났다. 이는 최근 천안함사건과 연평도포격의 영향으로 보인다. 실제 군사력을 살펴보면, 지상군과, 해군, 공군을 모두 합한 경우 한국은 69만 여명이고, 북한은 110만 여명으로 한국보다 우위에 있다[12]. 그러나 주요전력의 경우에도 지상군, 해군, 공군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력이 한국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인식과 현실은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군대가 잘 운영되고 있다”가 15.2%, “그저 그렇다”가 84.8%로 나타났다. “정부를 신뢰할 수 있다”가 12.1%, “그저 그렇다”가 78.8%, “그렇지 않다”가 9.1로 특별히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안

전수호에 노력한다"가 18.2%, "그저 그렇다"가 72.7%, "그렇지 않다" 9.1%로 정부신뢰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은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가 69.7%, "그렇지 않다"가 3.0%로 대부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중요성 인식에 있어서는 "민주주의를 추구해야 한다"가 78.7%, "그렇지 않다"가 6.1%로 전반적으로 일반국민과 같이 민주주의를 갈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주주의가 공산주의에 비해 우월하다"가 84.8%, "그렇지 않다" 3.0%로 전반적으로 민주주의가 우월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전세계적으로 공산주의에 비하여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나라의 성장이 확연한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Table 3. Perception of National Situation

(단위: 명, %)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한국 군대는 믿을 수 있다.	0 (0.0)	1 (3.0)	14 (42.4)	18 (54.5)	0 (0.0)
2. 북한보다 한국의 군사력이 높다.	0 (0.0)	18 (54.5)	11 (33.3)	4 (12.1)	0 (0.0)
3. 나는 군대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0 (0.0)	0 (0.0)	28 (84.8)	5 (15.2)	0 (0.0)
4. 나는 정부를 신뢰한다.	0 (0.0)	3 (9.1)	26 (78.8)	4 (12.1)	0 (0.0)
5. 정부는 국민의 안전수호에 노력한다.	0 (0.0)	3 (9.1)	24 (72.7)	6 (18.2)	0 (0.0)
6. 나는 한국이 자랑스럽다.	1 (3.0)	1 (3.0)	8 (24.2)	23 (69.7)	0 (0.0)
7. 한국은 민주주의를 추구해야 한다.	1 (3.0)	2 (6.1)	4 (12.1)	26 (78.8)	0 (0.0)
8.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보다 우월하다.	1 (3.0)	1 (3.0)	3 (9.1)	28 (84.8)	0 (0.0)

다음은 추가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국내적 상황에 대한 의식의 심층면접 내용이다.

(북한 군대와 한국 군대 비교 질문에) 후... (한숨 쉰다)
 그거는 좀....아... 그거는 좀 아리송해. 예 왜냐하면 원래 그쪽에서는 자기 뭐야 뭐, 전쟁에 대해서 많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필리핀 결혼12년 이주여성, 사례1>

(북한과 한국 군대 비교했을 때) 우리는 조금 강하고 북한이 너무 쎬요. <필리핀 결혼10년 이주여성, 사례2>

지금은 한국 좋아요 하하하하, 서로 같이 하나가...친구같이 <중국 한족 결혼4년 이주여성, 사례3>

위의 <사례 1>, <사례 2>, <사례 3>의 결혼이주여성은 북한 군대가 한국 군대보다 강하다고 생각하며, 한국이 통일이 되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3 Perception of International Situation

국제협력의 중요성에 있어서는 "주변국과의 협력은 남북평

화를 위해 중요하다"가 78.8%로 전반적으로 국제사회의 협력이 남북의 평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국은 남북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78.8%, "그렇지 않다"가 3%로 남북한의 통일에 있어서는 주변국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도움 된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안보공동체가 형성될 필요성이 있다"가 69.7%, "그렇지 않다" 3.1%로 남북한 평화를 위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아세아지역안보포럼"과 같은 국제적인 안보공동체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중요성에 있어서는 "주한미군은 국가안보에 도움이 된다"가 33.3%, "그렇지 않다"가 12.1%로 나타났다. "미국은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된다"가 24.2%, "그저 그렇다"가 51.5%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은 미국이 한국의 안보에 필요하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북한에 대한 긍정성의 정도에 있어서는 "북한은 화해와 협력의 대상이다"가 75.8%, 로 대부분 북한을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그리고 "북한을 위협한 국가로 분류해야 한다"가 30.3%, "그저 그렇다"가 66.7%로 조사되어 북한을 이란과 같이 테러지원국으로 분류한 것과 같이 위협한 국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향후 남국관계가 긍정적이다"가 66.7%, "그렇지 않다"가 9.1%로 역시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 북한 선전물을 본적이 있다"가 6.0%, "그저 그렇다"가 84.8%로 대부분 결혼이주여성들은 북한관련 선전물에는 관심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Table 4. Perception of International Situation

(단위: 명, %)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주변국과의 협력은 남북평화를 위해 중요하다.	0 (0.0)	0 (0.0)	7 (21.2)	25 (75.8)	1 (3.0)
2. 주변국은 남북통일에 도움이 된다.	0 (0.0)	1 (3.0)	5 (15.2)	26 (78.8)	1 (3.0)
3.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안보공동체가 형성될 필요성이 있다.	0 (0.0)	1 (3.0)	8 (24.2)	23 (69.7)	1 (3.0)
4. 주한미군은 국가안보에 도움이 된다.	0 (0.0)	4 (12.1)	17 (51.5)	11 (33.3)	1 (3.0)
5. 미국은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된다.	0 (0.0)	3 (9.1)	21 (63.6)	8 (24.2)	1 (3.0)
6. 북한은 화해와 협력의 대상이다.	1 (3.0)	0 (0.0)	7 (21.2)	25 (75.8)	0 (0.0)
7. 북한은 위협한 국가로 분류해야 한다.	0 (0.0)	1 (3.0)	22 (66.7)	9 (27.3)	1 (3.0)
8. 향후 남북관계는 긍정적일 것이다.	0 (0.0)	3 (9.1)	8 (24.2)	22 (66.7)	0 (0.0)
9. 사이버 공간에서 북한 선전물을 본적이 있다.	0 (0.0)	3 (9.1)	28 (84.8)	1 (3.0)	1 (3.0)

다음은 추가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국외적 상황에 대한 심층면접 내용이다.

(한국에 미군이 있는 정보 아느냐는 질문에) 네..우리 아버지가 미군이에요. (미군이) 한국 나라를 지키는 게 도움이 되요. (한국과 북한이 통일에 미국) 도움 받을 수 있어요. <필리핀 결혼10년 이주여성, 사례1>

(북한과 통일 할 때 일본, 미국 등이 도와준다는 질문에) 네 그렇죠, <필리핀 결혼14년 이주여성, 사례2>

위의 <사례 1>, <사례 2>의 결혼이주여성은 일본, 미국 등 주변국들이 한반도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4 Perception of Security Awareness

전반적인 안보상황의 인식에 있어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69.7%, “그렇지 않다”가 12.1%로 대부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안보상황이 안정적”이라 생각한 응답자는 81.9%, “그렇지 않다”18.2%이다. “안보의식 수준이 높은가” 질문에 응답자는 “그렇지 않다”가 48.5%로 나타났다. “한국에 전쟁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48.5%로 나타나 안보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안보상황과 북한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을 높이 인식하는 것을 볼 때 한국의 안보상황을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은 국가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는 보통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나라별 안보관심도를 보면 중국 조선족이 27.3%, 필리핀15.2%, 베트남9.1%로 역시 남북한 상황을 잘 아는 중국 조선족이 안보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Perception of Security Awareness

(단위: 명, %)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1 (3.0)	3 (9.1)	6 (18.2)	23 (69.7)	0 (0.0)
2. 나는 한국의 안보상황이 안정적이라 생각한다.	1 (3.0)	5 (15.2)	15 (45.5)	12 (36.4)	0 (0.0)
3. 나의 안보의식 수준은 높은 편이다.	1 (3.0)	15 (45.5)	16 (48.5)	1 (3.0)	0 (0.0)
4. 나는 전쟁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2 (6.1)	14 (42.4)	15 (45.5)	2 (6.1)	0 (0.0)

다음은 추가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안보의식의 인식에 대한 심층면접 내용이다.

북한...네 북한 알아요. 김정은 아버지는 잘 몰라요. (한국과 북한은 관계는)총을 이렇게 맞대고 있어요. (한국은) 민주주의, (북한은) 공산주의. 북한은 진짜 못 살아요. 어디가도 못해요. (북한) 안 가봤어요. (핵무기 질문에 대해) 핵무기가 뭐예요? (남북전쟁이면) 중국 안가요. 한국 떨어져 나왔어요. 집에 못가요. 하하하, 이길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해요. <중국 한족 결혼4년 이주여성, 사례1>

(연평도 하고 천안함 사건) 아.... 뉴스에서 봤어요. 아아 북한이 먼저 공격했다고... . (한국을 지켜야겠다는) 그럴 마음 있어요. 죽을 때까지 있어요. <필리핀 결혼10년 이주여성, 사례2>

(북한은) 아니 좀 좀 그래요 북한에서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쪽 자기 너무 생각만 하고 있어요 욕심... <필리핀 결혼12년 이주여성, 사례3>

위의 <사례 1>, <사례 2>, <사례 3>의 결혼이주여성들은 북한이 한국의 적대적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며, 뉴스 등 언론을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Conclusion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어떤 나라보다도 국가의 안보를 튼튼히 할 필요성이 있다. 더욱이 북한과 긴장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불안정한 현 상황에서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안보의식 실태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안보의식 연구결과 한국의 전반적 안보상황이 불안정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결혼이주여성들의 안보관심 정도는 보통이하로 파악되었다. 안보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결혼이주여성들은 정부나 군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었으며, 군대운영에 대해서는 잘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남북의 평화에 있어서 국제협력이 중요함을 인식하였고, 미국 역시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이와 같이, 결혼이주여성들의 안보의식 영향요인과 관련하여서는 전반적 안보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교육필요성, 군과 정부에 대한 신뢰, 북한에 대한 긍정성 등으로 조사되었으며, 안보의식에 있어서는 교육필요성, 군과 정부에 대한 신뢰, 국민 자긍심, 북한 긍정성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 안보의식 함양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결혼이주여성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안보교육 반영 필요하다. 전통적인 국가안보는 외부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중심의 안보개념이었다. 그러나 안보연구의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비군사적인 위협요소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동시에 전통적 안보영역이었던 군사적 분야에서도 비군사적 성격의 임무가 부가되고 있다. 따라서 현대적 안보는 매우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된 안보개념을 능동적으로 수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교육현장에서도 교육과정의 근저에서부터 실제 교육의 시행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13].

사실 우리의 안보교육은 탈냉전의 국제환경과 남북관계의 유동적 상황 그리고 국내의 정치사회적 여건의 변화와 통일열망의 급속한 확산에 영향을 받는 가운데 분명한 논리와 확고한 정책을 갖추지 못한 채 약화되어왔다. 대표적으로 각급 학교나 기관, 단체에서 시행하던 안보교육을 위한 교과과정까지 폐지하였던 것이다[14].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보교육은 방법적 측면에서도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안보교육의 국가독점 또는 국가주도형 안보교육의 접근방식이다. 이러한 안보교육은 이미 국민들에 의해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의 자발적 안보에의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소외와 좌절을 낳게 함은 물론 안보와 관련한 국민의 자율성과 자생적 안보의식의 성장을 저해한다[15]. 그러므로 결혼이주여성 사회적응 프로그램에서도 안보관련 내용은 다루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그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자료를 활용함은 물론 안보관련 현장답사, 외부 안보관련 전문가 특강 실시 등 안보교육훈련 방법의 변화를 추구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안보에 대한 관심 제고이다.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매스미디어는 정보의 전달수단 뿐만 아니라 의견의 표현수단은 물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수단으로서 그리고 토의의 광장으로서 여론형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매스미디어를 이용하여 여론을 선도함에 있어 여론이 결정되기에 앞서 충분히 자유로운 그리고 공개적이고 공정한 토의가 이루어지고, 그 대상이 되는 사상에 관해 충분한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진다면 완전한 민주주의 제도하에서도 국가가 의도한 방향으로 여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북한 사회주의 체제에 관한 비교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북한의 실상에 관한 바로알기 홍보 교육을 통하여 국민에게 현실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한다. 이전까지와는 달리 공산주의에 관한 문건이나 이상으로서의 공산주의와 현실로서의 공산주의 체제 간에 엄청난 괴리가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바르게 알릴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장체험학습으로서의 답사 및 기행은 범국민적인 안보의식을 확산시키는데 큰 효과를 발휘하며, 청소년과 일반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기에 용이하고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에 용이하고 지역주민들 내에서 안보의식 확산 분위기 조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답사기행 장소는 교육대상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며, 제3땅굴 및 DMZ, 6·25전쟁 전적비, 전쟁기념관 등과 같이 분단의 상처와 전쟁의 아픔을 담고 있는 곳이나 도라산역, 통일전망대 등과 같이 평화통일을 기념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하면 될 것이다.

또한 국방부에서는 국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군의 다양한 지원활동이 국민이 하나 되는 안보태세 확립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2011년 자매학교 병영체험과 청소년 호국수련활동, 부대개방행사 등 국민들에 대한 부대방문 및 안보현장견학 지원활동을 분석한 결과 74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혀 지난해보다 350%증가한 수치라고 말했으며, 행

정안전부에서 청소년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안보교육 이수자 중 73%가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대답한 것을 볼 때 군부대에서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병영체험훈련 등 군 부대별 실정에 부합하는 다양한 안보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운용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현장체험과 관련된 군 부대 및 행정기관은 시설명칭을 안보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의사나 열사의 기념관 등으로 변경하거나 적절한 공간을 활용하여 독립유공자, 전쟁영웅, 6·25전사자, 지역을 빛낸 얼굴 등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도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16].

셋째, 결혼이주여성들의 눈높이에 맞는 안보교육자료의 제작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도 일반국민들과 같이 다양한 방송이나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각종 정책을 접하고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안보교육자료는 결혼이주여성들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시각화된 안보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문화관련 지원센터에 인터넷을 활용하여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결혼이주여성 안보교육 자료방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본 연구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연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안보의식 함양에 따른 척도들이 기존에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만 결혼이주여성의 안보의식 함양 따른 척도들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측정방법에 한계를 지니고 있어 좀 더 세련되고 엄밀한 변수 및 설문개발의 필요성을 느끼며, 실증 연구에서 한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표본을 확보함으로써 해석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향후 연구자들은 보다 많은 표본의 확보를 통하여 일반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결혼이주여성의 안보의식 함양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 연구는 소수의 인원에 대해 설문지 방법과 심층면담에 의한 실증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객관성이 떨어지므로 차후에는 지역별 고른 분포의 다수 인원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REFERENCES

- [1] Lim, Chae Wan, "A New Perspective on the "Diasporic Phenomenon" in Ara of Globalization: Focused on transnational ethnic-national networks", The Korean Transactions of North East Asian Studies, 49: 471, 2008.
- [2] Kim Kyung Hak and others, "The Myth of Return: Migration and Settlement of Overseas Indians", Kyungin Media Group, 1, 2005.
- [3] Korea Immigration Service, "2014 Korea Immigration Service. Statistics annual report", 2014.
- [4] Park, Gap Lyong, "A Study on the Identities of Children whose Mothers are Female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 Global Diaspora Studies Graduate School, Chonnam National University, 1, 2014.
- [5]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Educational Statistics Data, 2014. 4. 1.
- [6] Park, Gyun Yeol, "The Consciousness of National Security and its Implications to Moral Education", Elementary Moral Education, 14: 180, 2004.
- [7] McNamara, Robert S. The essence of security, New York Harper & Row, 142-143, 1968.
- [8] Lee Young Gyun, "Cognitive analysis of the New Generation's National Security before Military Service", The Journals of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1): 49, 2002.
- [9] Shin Jung Hyun, Baek Jong Chun, "Policy of National Security", 18-19, 1984.
- [10] Kim Jong Young, Hwang Joong Ho, Lee Gyu Woong, "Plans for Raising National Security Awareness", Strategy Forum, 9: 218-219, 2008.
- [11] Kim Jong Young, Hwang Joong Ho, Lee Gyu Woong, "Plans for Raising National Security Awareness", Strategy Forum, The 9th Issue, 230, 2008.
- [12] Kim Hyun Gi, "Military Strategy and Power of North Korea", Strategy Forum, The 11th Issue, 183, 2010.
- [13] Park Gyun Yeol, "National Security Awareness and Moral Education", Elementary Moral Education, The 14th Issue, 179, 2004.
- [14] Park Gyun Yeol, "National Security Awareness and Moral Education", Elementary Moral Education, The 14th Issue, 228-229, 2004. [8] Lee Young Gyun, "Cognitive analysis of the New Generation's National Security before Military Service", The Journals of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1): 49, 2002.
- [15] Park Gyun Yeol, "National Security Awareness and Moral Education", Elementary Moral Education, The 14th Issue, 231, 2004.

Authors



Kap Lyong Park received the Ph.D. degrees of International Studies in Diaspora Studies from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in 2014. Dr. Park joined as the dean of the Department of Military Public Officials at Songwon University, Gwangju, Korea, in 2011. He is interested in security awareness of multicultural families as well as policy and adaptation of military service regarding to the children of those including their social integration.